

## 토기회 영남지회



조복래  
지하공간개발연구소 소장  
토질및기초기술사회 영남지회 회장

토질및기초 기술사가 영남지방에서 배출되어 하나의 집단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였다.

특히 부산이라는 대 도시를 끼고 있는 영남권에서는 어떤 형식이던 전문 기술사들이 친목위주의 모임을 만들어 명백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그 규모는 미소한 상태였다.

2000년도를 지나 지방자치 시대가 점차 뿌리를 내려가던 시점에는 그런 지역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전문 기술사들의 사이에서도 그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던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때 서울에서도 토질및기초 기술사회가 전환기를 맞아 전국조직화를 서두르던 시절이었으며 당시 취임한 주재건회장께서 부산을 방문하는 자리에 지역에 거주하거나 현장에 내려와 있던 토질및기초 기술사들을 한자리에 모우는 최초의 지역적 모임에 태동을 알리는 계기를 부여한 것도 이때쯤으로 기억된다.

당시 그 모임에 부산시 고위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황택진 (현 동의대교수) 국장이 참가하여 부산지역에 토질및기초 기술사들의 구심체를 만들기로 잠정적인 동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저는 개인자적으로 그 모임에

참석하였으나 지역적 잠재성과 부산신항, 낙동강 점토 등 당시 이슈가 되고 있었던 토질관련 현안들에 비추어 토기회 영남지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태동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데 작은 힘을 보태게 되었다.

그 즈음인 2004년 가을 대한토목학회와 기술사 모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셨던 동남 기초(주)의 고헌진 사장께서 영남지역의 토질및기초 기술사 모임을 조직화시키려는 노력을 처음으로 시도하게 되었고 이 모임에는 부산공업대 총장 출신의 한상숙박사, 서울지역에서 활동하시다 건강상 귀부해계셨던 장흥득교수 등이 힘을 보태주셨고 젊은 기술사로 저와 현재는 (주)한가람의 김광호 상무등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서울지회와의 관계설정 보다는 영남지역의 친목모임에 가까운 소규모 조직이었으며 1년에 4회 정도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지역에 거주하는 토질기술사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조직화 시키는일에 매진하고 있었다. 당시 총무 역할을 해준 김광호상무의 노고가 적지 않았던 시절이었으며 초대회장이었던 고헌진 사장 또한

이일에 큰 힘을 보태주어 초기 지역조직의 태동에 큰 역할을 해주었다.

그러나 이런 태동기에는 조직적인 움직임보다는 친목 위주의 모임으로 흘러갔고 일정시간이 지나면서 서울지역의 토기회와 연계를 강화하면서 친목위주의 토기회 영남지회 모임은 체계적인 조직화의 길을 걷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맡아준 사람이 영남지회 4대 회장이자 두 번째 수장을 맡아준 (주)엠에스엔텍의 대표이신 이명건 회장이었다. 이명건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과 뛰어난 친화력으로 그동안 명맥만 이어오던 영남지회를 본격적인 전문가 집단으로 승격시킨 분이로서 그동안 영남지회 모임에 소극적이었던 많은 토질기술사들을 한곳으로 모아 모임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년차적으로 계속 배출된 젊은 기술사들을 규합하여 모임다운 조직을 구성하게 되었다.

또 2대 총무로 (주)길평의 유상호 상무가 취임하여 모임의 구체적인 틀을 만들고 각종 회의자료 및 연락처를 정비하였으며 회비체계를 정례화하고 서울 토기회와의 관계설정이나 정기적인 회의참석등도 이루어지는 등 영남지회의 정착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

매년 개최되던 토기회의 기술발표회에 그동안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던 영남지회 소속의 기술사들을 지역대표의 자격으로 참가하게하고 최소 2~3명의 대표단을 정기적으로 참가시키는 발판도 이 시기에 마련하게 되었다.

저는 그 조직의 부회장으로 이명건 회장을 도와 토기회 영남지회를 체계화 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다가 현재 이명건 회장을 이어 5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 토기회 영남지회는 기술사 의무교육 규정에 따라 영남지회 차원의 전문교육을 수차례 개최하였고 구조기술사나 도로공항기술사 모임과의 유사 전문가 그룹과 지

속적인 기술교류의 틀을 마련하였고 토질을 전공한 부산 지역 대학교수진과의 정기적인 모임, 토질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건설인들과의 교류를 확대하여 토질이라는 분야가 건설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확인시켜 나가고 있으며 토질관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영남지역의 토질에 관한 전문적인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다.

나아가 부산에 별도도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지방공학회회를 대신하여 토목학회 부산울산 경남지회에도 우리 토질전문가들이 다양한 참가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 각종 지자체와 행정기관에 설계, 시공관련 자문위원으로, 법원의 전문 감정인으로 또 사회적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분쟁을 해결하는 등 토질기술사로써의 사회적 책무도 게을리 하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지역에서 펼쳐나가고 있다.

현재 회원의 규모는 총 30여명으로 최근에 배출된 기술사까지 모두 영남지회 조직에 참가하고 있으며 현재는 (주)동아지질의 신민식 이사가 총무를 맡아 모임의 굳은 일을 처리해주고 있으며 분기별로 정기모임을 개최하고 서울지역의 이사회나 정기총회는 영남지역을 대표하여 반드시 참가하거나 회의자료를 전달받아 지역의 기술사들에게 전파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지역의 전문가 집단으로써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 토기회 영남지회는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영남지역의 명실상부한 지역적 대표성을 가진 조직으로써 서울 토기회와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설정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려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

표 1. 영남지역의 토기회 회원명단

| 성명    | 회원구분  | 소속회사        | 직책   |
|-------|-------|-------------|------|
| 강 문 기 | 정회원   | (주)한주이앤씨    |      |
| 고 광 진 | 종신회원  | (주)동남기초     | 초대회장 |
| 공 영 주 | 미등록   | (주)소일텍      |      |
| 권 정 근 | 미등록   | 부산대학교       |      |
| 김 광 호 | 종신회원  | (주)한가람      | 초대총무 |
| 김 남 규 | 미등록   | (주)동이지질     |      |
| 김 대 우 | 온라인회원 | (주)미래소일텍    |      |
| 김 덕 봉 | 종신회원  | (합)한진개발공사   |      |
| 김 윤 태 | 미등록   | 부경대학교       |      |
| 김 태 형 | 정회원   | 한국해양대학교     |      |
| 박 재 성 | 종신회원  | (주)한신 엔지니어링 |      |
| 박 정 호 | 종신회원  | (주)광림ENG    |      |
| 백 승 훈 | 미등록   | (주)흙사랑이앤씨   |      |
| 송 병 덕 | 온라인회원 | 상수도 본부      |      |
| 신 민 식 | 정회원   | (주)동이지질     | 현 총무 |
| 신 종 보 | 정회원   | (주)상지토목기술공사 |      |
| 신 종 경 | 준회원   | 서한토질및기초기술단  |      |

| 성명    | 회원구분  | 소속회사       | 직책    |
|-------|-------|------------|-------|
| 안 상 덕 | 종신회원  | (주)하우엔지니어링 | 현 부회장 |
| 유 상 호 | 정회원   | (주)길명      | 직전 총무 |
| 이 경 준 | 미등록   | (주)동이지질    |       |
| 이 광 열 | 미등록   | 동서대학교      |       |
| 이 명 건 | 종신회원  | (주)엠에스엔텍   | 직전 회장 |
| 이 영 수 | 온라인회원 | (주)정인기술단   |       |
| 이 완 진 | 종신회원  | (주)덕원이앤씨   |       |
| 이 진 주 | 온라인회원 | (주)청암      |       |
| 장 흥 득 | 온라인회원 | (주)거원 Eng. | 고문    |
| 전 흥 근 | 미등록   | 다운 ENC     |       |
| 정 진 호 | 미등록   | 부경대학교      |       |
| 조 복 래 | 정회원   | 지하공간개발연구소  | 현 회장  |
| 주 인 곤 | 미등록   | 부산정보대학     |       |
| 한 상 숙 | 미등록   | 한상숙 기술연구소  | 고문    |
| 황 은 아 | 종신회원  | 미래지반연구소    |       |
| 황 택 진 | 정회원   | 동의대학교      | 고문    |